

현대차 임협타결...기아차 교섭 가속

어제 임단협은 결렬 노조 오늘 부분과업 현대차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등 합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상안을 최종 타결했다. '큰 집'인 현대차가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아자동차 임금·단체협약 교섭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경기도 평택시 소하리공장에서 제13차 임단협 교섭을 벌였다. 하지만 사측이 임금 등 구체적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아 교섭은 결렬됐다. 노조는 사측에 다음 교섭 때 일괄제시안을 밝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섭이 결렬되면서 기아차 노조는 예고했던 5일 주·야 4시간씩 부분과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아차는 노조의 21차례 부

과 12번의 줄과업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성과급 부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급액에 노사가 합의한 것이 가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년동안 논란을 빚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에 합의한 것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9만 8000원 인상(기본급대비 5.4%, 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350%+900만원,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150%+60만원(재래시대상상품권 10만원 포함) 지급 등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관계자는 "현대차가 협상을 마무리해 기아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기아차의 경우 회사측이 임금안을 내놓지 않은데다, 밤샘근무 폐지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등의 문제가 있어 구체적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대차의 합의는 주간연속 2교대제 등 큰 틀에서 자동차업체의



중소기업 사랑나눔 바자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는 4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내 광주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2012 광주·전남 중소기업 사랑나눔 바자'를 개최했다.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과 성금 2000만 원을 'kbiz 사랑나눔 재단'에 전달했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제공)

상장사 4곳중 1곳 번 돈으로 이자 감당 못해

올해 상반기 상장사 4곳 중 1곳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69개사 가운데 비교 수치가 있는 63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반기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은 회사는 전체의 22.43%인 142곳으로 지난해보다 3곳 늘었다. 나머지 491곳은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넘어서진 않았다.

숫자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3곳 줄었다. 경기침체로 상장사들의 전반적인 이자부담은 커졌다. 올해 상반기 이자보상배율은 4.50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59배보다 낮아졌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을 나눈 수치로 4.50배는 1000원을 벌어서 222원을 이자로 냈다는 이야기다. 작년 상반기의 179원보다 부담은 43원 증가했다. /연합뉴스

올 구조조정 대상 中 小 企 역대 최다

은행권, 1335곳 신용위험 기업 선정

올해 역대 최다 규모의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전체계적인 불황에 자금 사정이 갈수록 나빠진 결과다. 중소기업이 불황의 직격탄을 맞자 보증료를 멋대로 올리는 관행을 금지하는 등 추가 지원책이 마련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중소기업 1355개(잠정치)를 올해 신용위험 세부평가 대상으로 선정,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신용위험 세부평가는 금융권의 신용을 50억~500억원 끝이다. 중소기업 가운데 위험한 곳을 추려 구조조정 여부를 정하는 제도다.

세부평가 대상에 오른 중소기업은 2010년 1290개에서 지난해 1129개로 12.5% 줄었지만 올해 들어 다시 20.0%나 증가했다.

평가가 정례화된 2009년의 1차 평가(신용공여액 50억~500억원 외감법인) 대상이 861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평가 대상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다.

은행들은 다음 달 말까지 외감법인과 비외감법인에 대한 세부평가를 마

'선운지구 진아리채' 중소형아파트 인기

건본주택 1만5000여명 몰려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광주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높다.

지난달 30일 개관한 진아건설의 '선운지구 진아리채' 주택전시관에는 태풍 속에서도 1만5000여명이 몰렸다. 이 아파트는 실수요층이 선호하는 중소형인데다, 편리한 교통여건, 뛰어난 자연환경으로 주목받고 있다.

진아건설에 따르면 '선운지구 진아리채'는 16~20층, 전용면적 59㎡(24평)·71㎡(28평)·78㎡(30평) 규모의 총 315가구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조감도)

특히 중소형에서는 보기 어려운 4-베이 설계가 특징이다. 또 발코니 확장 면적을 제공해 실속을 더했다. 분양가는 600만원대 초반이다.

이 아파트는 마감재에 신경을 썼다. 친환경 자재에 금함에 강하고 열전도율이 뛰어난 강마루 바닥을 사용했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와 도서관을 갖춘 커뮤니티센터, 무인택배시스템 설치 등 첨단시스템을 도입했다.

아파트가 위치한 선운지구는 무진대로, 제2순환로,

광주~무안 고속도로로 인근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또 황룡강과 어등산이 주변에 있어 자연환경이 빼어나다.

2014년 송정역 복합환승센터가 조성되고, 2015년 어등산관광단지 내 호텔·콘도·27홀 골프장·테니스장·수영장·테마파크가 들어서실 예정이어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투자가치도 높다.

진아건설은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2순위, 6일 3순위 청약 접수를 인터넷으로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2일이다. 주택전시관은 서구 광천동 신세계이마트 옆에 마련됐다. 분양 문의 1566-2105.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기업들 태풍피해 복구 팔 걷어

현대·기아차 30억 등 성금 기탁...직원들 봉사활동 구슬땀

광주·전남을 휩쓸고 간 태풍 '볼라벤'과 '텐진'의 피해 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지역 기업들도 성금 기탁과 봉사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4일 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광주사업장은 지난 3일부터 오는 8일까지 직원 120명을 태풍 피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 광산구 유평마을 등에서 부서진 비닐하우스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 장화, 드라이버, 니퍼, 낫 등 피해 복구 장비 전달하고, 빵과 음료수 등 간식을 군인 등 복구 인력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재민을 위한 성금 30억원을 내었다.

이 성금은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등 태풍 피해지역 주민과 농어민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태풍이 농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해 피해 지역의 농협과 공관장을 통해 과일, 수산물 등을 구입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피해 가정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해 차량의 신속한 정비 지원을 위해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해차량 점검 서비스'를



니주세무서(서장 전영래)는 지난 3일 니주시 산포면 소재 이모씨의 400여평 육묘하우스 모종설치대 철거 작업 등 태풍 피해 농가에 힘을 보태며 복구작업을 펼쳤다. (니주세무서 제공)

코스피지수	1,907.13 (-5.58)
코스닥지수	507.41 (-5.04)
금리 (국고채 3년)	2.77% (+0.02)
원·달러 환율	1,133.10원 (+2.1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PAR3 골프장, 연습장 매매

입지 | 화순 전남대 병원 3분거리
규모 | 전체부지면적 146,411㎡ / 사업승인면적 130,718㎡
 PAR3골프장 / 실외연습장 40타석 비거리 170yd
편의시설 | 클럽하우스 1,552.80㎡ (라카를, 샤워실, 레스토랑)
 실외연습장 1,654.92㎡ (라카를, 강의실, 골프샵)
 주차공간 : 160대 주차
특이사항 | 감평가 82억원 / 매매가 65억
 現회원 1,000명
 PAR3골프장 / 실외연습장

문의처 010-9349-5555 · 062-446-5000